

## 생물다양성협약 총회 개최지, 중국이 아닌 캐나다로 변경

- 中 엄격한 ‘제로 코로나(Zero-COVID)’ 정책으로 생물다양성협약 개최 여부 불투명이 원인 -
- ‘22년 12월, 향후 10년간 글로벌 생물다양성 보전 전략을 결정하는 프레임워크 채택 예정 -
- 플라스틱 감소, 나고야의정서, 생명공학기술의 부정적 영향 등 바이오업계 관련 이슈도 논의 -

김지운 선임연구원 · 오기환 센터장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

### ◇ 생태계 파괴 등 지구환경문제의 세계적 인식 확산에 따른 생물다양성협약 채택<sup>1</sup>

- 생물 다양성이 식물, 동물, 미생물 혹은 그들을 둘러싼 생태계에 관한 것 이상이라고 인식되었고, 곧 인류와 식량 안전, 의약품, 대기, 수질, 거주지 및 우리가 사는 건강한 환경에 대해 필요한 것임을 인식하게 되면서 ‘92년 리우의 지구 정상회담에서 150개 국가가 서명한 국제적 합의 개념의 생물다양성협약(CBD)이 채택됨.
- ‘93년 발효 이후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총회에서는 ‘00년에 카르타헤나의정서, ‘10년에 나고야의정서와 생물다양성전략 2011-2020 등을 채택하였음.

### ◇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COP15) 중국 쿤밍에서 캐나다 몬트리올로 변경<sup>2,3</sup>

- 전 세계적으로 매년 가파른 속도로 생물다양성이 줄어들고 있으며, 그간 진행되었던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은 전략과 목표의 구체성이 결여되고 이행성과 또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20년 10월, 약 200개의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회원국이 2030 글로벌 생물다양성전략 프레임워크(GBF) 초안 마무리를 위해 중국 쿤밍에서 대면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개최되지 못하고 ‘21년 10월에도 온라인으로만 1부 회의가 진행되었음.
- 2030년 전 세계 육지와 바다를 최소 30% 보호하기 위한 공동 목표가 구현되어야 하나, 중국의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이 회의를 다시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은 상황
- ‘22년 6월 21일,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은 총회 개최지를 쿤밍이 아닌 몬트리올로 변경한다고 발표함. ‘22년 12월 5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되며, 중국은 COP15의 의장직을 계속 유지하고 Huang Runqiu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이 의장직을 수행할 예정임.

### ◇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국내외 바이오산업계 관련 중요 이슈 논의 예정

- 프레임워크 초안에 포함된 21개의 목표에는 플라스틱 폐기물 제로화 등 생물다양성 유해오염 감소,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효과적 조치, 모든 기업의 생물다양성 의존도 및 영향 평가, 생명공학기술로 인한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 감소 조치 등 국내외 바이오업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들이 논의될 예정이라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상황임.
- 의장국으로서 그리고 생물자원이 풍부한 나라로서 중국의 정책 발표와 역할도 국내 기업들에게 영향을 크게 줄 수 있어 중국산 생물자원을 사용하는 국내 기업의 관심도 높은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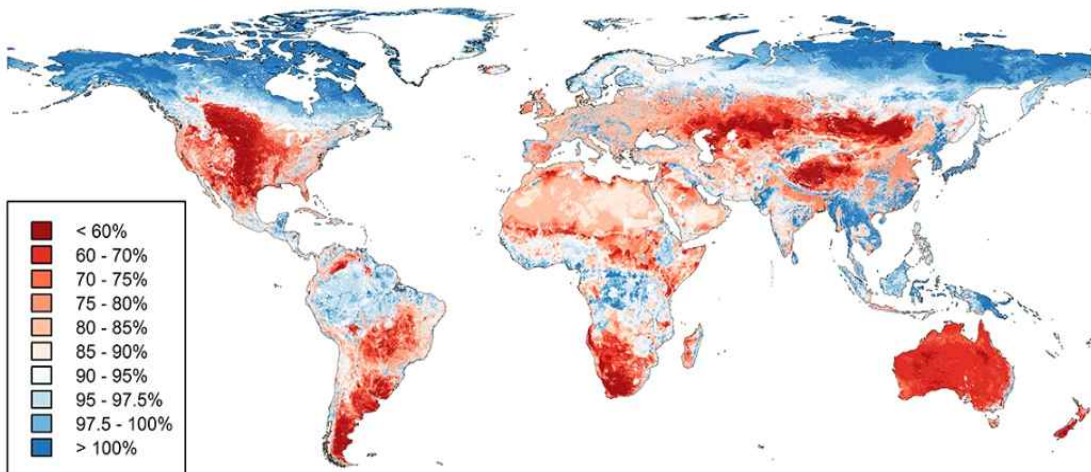
◇ 대한상공회의소, 생물다양성협약 등 국제협약에 적극 대응 필요성 제기<sup>4</sup>

- 대한상공회의소는 '22년 6월 9일자로 공개한 '자연자본 관련 글로벌 규범 현황 및 대응 과제' 보고서를 통해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전략인 '포스트-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가 채택될 예정임을 알리며,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글로벌 규범 수립 과정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함.
- EU는 EU 택소노미 환경 목표에 '자연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보호 및 복원'을 포함하고, 유럽 그린딜의 일환으로 '2030 EU 생물다양성전략'을 채택함. EU를 포함한 일본, 영국, 중국 등 주요국들은 '21년 10월 생물다양성 기금 설립 및 확대계획도 발표한 상황임.
- 보고서에서는 국제사회에서 자연 손실이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기후변화와 더불어 자연자본 보전도 이제는 글로벌 핵심 규범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기업들에 대해 책임감 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만큼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

◇ 생물다양성(Biodiversity) 손실, 전 세계 육지표면의 58%에 걸쳐 위협적 수준에 도달<sup>1</sup>

- 생물다양성은 지구상의 종(Species)의 다양성,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Ecosystem)의 다양성, 생물이 지닌 유전자(Gene)의 다양성을 총체적으로 지칭함.
- 국제자연보존연맹(IUCN)에 의하면 지구상 생물종 분포는 한대 1~2%, 온대 13~24%, 열대 74~84%로 추정되며, 열대지역 중에서도 열대우림은 지구 표면적의 7% 정도인데 비하여 지구 생물종의 반수가 서식하고 있음. 특히 개발도상국에 속해있는 열대우림은 파괴속도가 급증하여 매년 평균 약 0.6%(약 1,120만 ha)가 감소함.
- 이러한 추세로 생물다양성의 파괴가 지속될 경우, 농업 분야의 유전적 품종 교배를 활용한 유전적 다양성 측면이나, 환경 및 기후조건을 유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류의 생존에 큰 위협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되고 있음.

〈 세계지도로 본 생물 다양성 손실 예상 정도(\*출처 : Science 저널) 〉



〈참고자료〉

1. 국가 생물 다양성 정보공유체계, 생물다양성협약 개요(www.kbr.go.kr)
2. STATEMENT BY MS. ELIZABETH MARUMA MREMA, EXECUTIVE SECRETARY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2022.6.11
3. Major biodiversity summit will go ahead in Canada not China : what scientists think, Nature, 2022.6.22
4. 자연자본 관련 글로벌 규범 현황 및 대응과제 보고서, 대한상공회의소, 2022.6.8